

# 주거복지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 전주시, 전문가 22명 참여... 관련 사업 추진시 상담·자문·품질점검 등 재능기부로 지원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노후주택 개보수 등 시민들의 주거불안 해소를 돕는 주거복지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더욱 촘촘한 시민 주거안정망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향후 각종 주거복지 사업의 전문성 확보와 주거복지 도시 실현을 위해 건축가, 주택, 주거재생, 주거환경, 복지, 부동산, 디자인 등 다양한 주거복지 분야 전문가 22명이 참여하는 인적플랫폼을 구축, 주거복지 공공건축가 재능 기부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주거복지 공공건축가들은 재능기부 형식으로 사회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등 공적 임대주택 보급의 기획 단계와 추진 과정에서 각종 자문과 각 공정별 품질 점검을 지원한다.

또한 주거복지와 연계된 도시재생 사업과 마을공동체 사업, 커뮤니티 공간 설계, 주거약자 등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개보수 등에 상담과 자문을 맡을 예정이다.

동시에 시는 주거복지 공공건축가와 공무원, 공동체 활동가,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각종 워크숍과 세미나를 열

어, 주거복지 역량도 강화한다.

이와 관련 이날 '2018년 주거복지 공공건축가 1차 워크숍'을 갖고 위촉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 올 한 해 운영 계획과 활동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주거복지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이다.

다양한 주거복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적 플랫폼인 공공건축가 재능기부 제도 운영으로 향후 사회주택·공공임대주택·빈집정비·집수리·단독주택 관리 등 주거복지 사업이 활기를 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나아가 시민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

상을 위한 전주민의 주거복지 정책이 발굴되고 다양한 주거복지 분야 전문가 교류 및 정보 공유로 신진 전문가들도 발굴·육성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주거복지 분야 전문가들이 주거복지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이 확보되고 주거복지 도시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정된 거주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 주거복지 정책들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 김승수 전주시장 '지혜의 원탁' 방문

김승수 전주시장이 '지혜의 원탁'을 통해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기 위한 사업들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지혜를 모았다.

김 시장은 20일 진북동과 인후2동을 차례로 방문해 해당 지역 주민들과 전주 발전을 위한 대화를 가졌다.

특히 김 시장은 △어은터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진북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문화관광형 모래내 시장 육성사업 △도시숲 광대역 그린네트워크 조성사업 등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 △어은골 보호수 공원화 현장 △우성경로당 △예산365일 데이케어 노인주간보호센터 △우성경로당을 찾아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채규남 기자



김승수 전주시장이 20일 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을 방문해 주민들과 전주 발전을 위한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전주시,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 참여 기업 3월 9일까지 모집

전주시와 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오는 3월 9일까지 2018년도 여성친화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 업체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취업한 근로자가 최근 1년간 2명,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이거나 새일센터와 경력단절 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 등이다.

지원비용은 총공사의액의 60%~70%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다.

시는 5개 지원업체를 오는 3월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채규남 기자

## 박근혜 1심 구형 27일 나올 듯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구형이 오는 27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운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 114차 공판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에 제한이 있어서 다음 주쯤 변론을 종결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일정을 26일과 27일로 계획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서증조사를 진행한 뒤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당초 재판부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공판 기일을 잡아 28일 결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28일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되어 하루씩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이날 최순실(62)씨의 증인신문이 예정되었지만 최씨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예정대로 27일 심리가 마무리되면 통상 선고 기일이 결심 공판으로 부터 1개월 전후로 이뤄지는 것을 비추 볼 때 박 전 대통령의 1심선고는 이

## 다음주 썸 변론 종결 이르면 3월 말 선고

르면 3월 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씨의 경우 지난해 12월14일 결심 공판이 열린 후 6주 뒤인 지난달 28일 선고기일이 잡히고 한차례 연기돼 지난 13일 선고가 이뤄져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 만기일인 4월 16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재판부는 13일 선고된 최씨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다.

한편, 최씨는 선고 다음 날인 지난 14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검찰도 지난 19일 사실인정과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상민 기자

## 설 연휴 '대박' 난 전주한옥마을

### 15개 문화시설 하루 평균 1만5000명... 전년 대비 31% ↑

최근 설 연휴기간 전주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 수가 지난 해 설 연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15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기간 중 한옥마을 경기전 등 전주 지역 15개 주요 문화시설을 찾은 이용객 수가 총 6만 2명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1만 5천명이 방문한 것으로 지난 해 설 연휴기간 13개 문화시설에 총 4만 5,742명이 다녀가면서 하루 평균 1만 1,436명의 이용객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약 31%정도 증가한 것이다.

특히 이번 통계는 유료 관광지이거나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이 용역 집계 가능한 문화시설로 연휴기간 전주한옥마을을 찾은 실제 관광객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측했다.

시설별로는 설 명절을 맞아 탁본 체험과 모주 체험, 주렁구 만들기 등 다양한 무료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가장 많았으며 경기전(1만 2,074명)과 어진박물관(1만 743

명), 소리문화관(9,413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지난 해 설 명절 이후 새로 개관한 한옥마을 역사관과 전주김치문화관에도 각각 2,465명과 1,204명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일별로는 설날 다음날인 17일 2만 2,495명으로 이용객이 가장 많았으며 18일에도 총 1만 4,265명이 한옥마을 등 문화시설을 찾아 명절 차례 등을 마친 시민과 관광객이 가족들과 함께 전주한옥마을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에는 귀성객과 관광객, 시민들이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전주시 문화시설에서 다채로운 전통문화행사와 프로그램이 진행돼 많은 관광객이 찾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전통문화의 정수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주한옥마을을 시민들도 가보고 싶은 시민들의 자랑이 되는 지속 가능한 관광지로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 여중생 폭행·금품 갈취한 10명 검거

여중생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0일 폭행 등의 혐의로 김모(21)씨를 구속하고 김모(17)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로 최모(16)양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오후 7시께 전주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A(14)양에게 뺨을 때리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여중생 A양과 B(14)양의 금품을 빼앗고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피해 여중생 2명은 병원에서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기자

## 자기 휴대폰 분다며 지인 얼굴 담뱃불로 지진 20대 징역

자기 휴대폰을 분다는 이유로 지인을 폭행하고 담뱃불로 얼굴을 지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정운현 판사)는 20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9일 오전 1시5분께 전북 김제시의 한 술집에서 지인 B(28)씨와 술을 마시다 B씨가 자신의 휴대폰을 분다며 머리 부위를 4차례 내려치고 자신이 피우던 담뱃불로 B씨의 얼굴을 지지는 등의 폭행을 저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폭행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현장에서는 A씨와 B씨 외에도 지인 2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지만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과 담뱃불을 이용해 상해를 가해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크다"면서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상민 기자

# 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테 홍

## 서바이벌

ATV / 버기카  
레프팅 / 카약  
스키 / 보드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 485-2)

**대표 약력**

일피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국제대회 디수 참가 및 우승 동계U대회 국가대표 출전 국가대표 코치 역임 일본 삿포로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베르티 지력 취득 응급처치 요원 자격증 취득 레프팅 가이드 자격 취득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연)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
--	---